

현장 중심 '경제종합센터' 운영...일자리 넘치는 복구 만들겠다

민선 7기 구상 듣는다

문인 복구청장

"기업 경제활동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넘치는 복구를 만들겠습니다."

29일 문인(59) 복구청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 되는 것이다"며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어느덧 한달여를 맞은 현재까지 문 구청장은 휴일도 반납하고 현안사업을 챙겨왔다. 광주역 주변 활성화, 도심 재생 등 굵직한 현안부터 도로 파손 주민 불편민원까지 하나씩 청사진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부터 광주시 복구 부구청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중앙·지방행정 기관을 두루 거치며 얻은 경험과 관록이 녹아들어 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건 주민과의 소통이었다. 공중화장실 설치, 차선 도색 등 주민들

주민 생활 불편 즉각 해결

청년 친화형 산업 추진

VR센터 신설 광주역 활성화

이 겪는 생활 불편사항 1104건을 발굴해 497건을 즉시 정비했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기업체 대표들과 신용동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를 방문해 산업 현장 밀착형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현장민원실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첨단산업경영자협회, 본촌산단 관리공단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업무 토론 회도 열어 민선 7기 구청운영의 방향과 국·시비 확보방안 등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구청장은 "민선 7기 1호 공약으로 지난 24일 신용동에 '경제 종합지원센터' 문을 열었다"며 "이 센터에서는 앞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매칭 등 현장 중심의 기업활동 지

원을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문 청장은 첨단·본촌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뿐 아니라 복구에 자리한 광주과학기술원, 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등과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촌산단은 최근 지방산단으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년 정책으로 뒷받침해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현재 복구의 최대 현안 사업은 광주역 활성화다. 문 청장은 우선 광주역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중층 2층 청춘 창의력 시장을 연계해 빛과 젊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의 첫단추를 끼웠다.

광주역 KTX 진입이 안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청장은 남북간 도로도 임기 내에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구·남구에서 복구로 한번에 넘어올 수 있는 남북간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광주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가장 좋겠지만 성사되지 않

을 경우에는 신안교와 광천1교를 잇는 도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신방직 이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청장은 "용봉IC 진출입로 개선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은 남북간 도로와 북부순환 도로를 우선 개설해 우회도로로 활용함으로써 해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복구 27개동 가운데 21개동이 도심공동화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광주역 활성화, 청년 친화 산업단지 추진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복구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문 청장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와 광주시 근무에서 얻은 행정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복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까지 온기가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복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와 광주시 근무에서 얻은 행정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복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까지 온기가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복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와 광주시 근무에서 얻은 행정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복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까지 온기가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복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현명한 재난대응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6일 목표 신안버티호 텔에서 열린 광주시새마을회 국제행사 성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참석해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민선7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광주시 제공>

동구·북구 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 89개 창출

1년 동안 인건비 등 지원

광주시 자치구들이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

동구와 북구는 29일 "신규·재심사 지정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약정 체결 기업은 동구 4곳, 북구 10곳으로, 각각 10명, 79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은 약정에 따라 취약계층의 무고용, 목표매출액 달성,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참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의 의무 사항을 수행하게 되고, 주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도 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사회적기업에 1년 동안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 등을 연차별 지원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위탁 관리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

다.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게는 재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적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구에는 12개의 사회적기업(인증 9개, 예비 3개)이, 북구에는 42개 사회적기업(인증 33개, 예비 9개)이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책 읽는 도시' 만든다

'독서인문학진흥팀' 신설

광주시가 시민들의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독서진흥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7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선 7기 조직 개편에서 '독서인문학진흥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서진흥 방안은 2017년 국가도서관 통계조사와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이용환경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분야를 분석해 마련했다.

우선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 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6만 364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낮춰 향후 공공도서관 9개관을 신설하고, 시민 1인당 장서수도 1.7권에서 2.5권을 목표로 100만권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를 1만 2300명에서 7600명로 하기 위해 사서를 추가 확보하고, 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사업 참여도서관 확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스마트도서관 설치, 실버코너·청소년 코너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게 된다.

시는 체비지 매각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에 공고하고, 각 구청과 시청 민원실에 매각안내 팸플릿을 비치했다.

입찰기간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입찰 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

'온비드'서 8월6~10일 입찰

광주시는 한지방식으로 시행중인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소모 사업비와 주민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각한다.

하남3지구는 하남산업단지, 하남2지구, 수운지구, 하남역 사이에 위치해 개발 잠

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2차 매각은 1차 매각된 33필지(상업용지32, 공동주택 1)를 제외한 상업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42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등 총 45필지다. 이들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